



▲긴급가뭄대책회의

경산시, 가뭄 위기 정면 돌파...가뭄 대책 회의 개최

주요 저수지 준설·관정 설치·보수 즉각 시행

경산시가 최근 지속되는 강수량 부족과 폭염으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저수지 준설과 관정 설치·보수 공사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긴급 가뭄 대책 회의에서는 현 가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의 재난 대응 기조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조현일 시장은 회의의

통해 현장의 가뭄 피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저수지 퇴적토 제거를 위한 준설 시행을 우선순위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농업용수 적기 공급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저수지 준설 및 관정 설치 등 현장 작업을 병행 추진하여 가뭄 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번 저수지 준설은 저수지의 저수 용량을 근본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영농기 및 가뭄 장기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정 설치·보수 및 용수관로 설치는 저수지의 보조수원으로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다.

경산시는 준설공사 등 가뭄 대책 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토사퇴적, 수질변동, 저수량 확보 등의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비 항구적 수리시설 정비 예산을 선제적으

로 확보하여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늘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시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 위기 시대에 가뭄은 상시적인 재난이 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선제적 행동으로 농업 피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담양군, 폭염·가뭄에 과수 피해 우려... 생육관리 당부

열매 터짐·햇볕 데임 예방 위해 수분 관리와 병해충 방제 강조

담양군은 최근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과수의 열과(열매 터짐)와 일소(햇볕 데임) 등 고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생육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다.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면 과수의 수분 스트레스가 커져 생육과 과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포도는 껍질이 얇고 탄력성이 낮아 열과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고온기에는 일소와 착색 불량, 당도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한 햇볕으로 과실 표면 온도가 40℃ 이상 올라가면 일소와 염소(잎 타는 증상)가 발생하기

쉽다.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호흡량이 늘면서 과실의 당도와 착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원의 수분과 토양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살수장치와 차광망을 활용하고, 가뭄에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주기보다 적은 양을 자주 공급해 토양 수분의 급격한 변화를 줄여야 한다.

조생재배를 통해 지온 상승을



억제하고, 풀이 지나치게 자랐을 때는 10~15cm가량 남겨 예초하면 수분 경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병해충 예방과 방제도 필요하다. 응애와 총채벌레, 담배나방 등 고온기에 발생하기 쉬운 해충은 더운 날씨에 번식이 빨라질 수 있어 발생 초기에 약제를 번갈아 살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과원의 수분 상태와 과실 생육을 자주 살펴보고 적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기술센터도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농가의 고온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돕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서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2025 온실가스 감축목표 193.5% 달성

친환경 김 양식 탄소흡수원 인정

서천군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탄소중립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2만 7587톤CO₂eq로, 실제 감축실적은 24만 6879톤CO₂eq를 기록해 목표 대비 약 193.5%를 달성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김 양식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

분야별 감축실적은 탄소흡수원이 23만 7597.3톤CO₂eq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건물 분야 8289.4톤CO₂eq, 수송 분야 726.7톤CO₂eq, 농축수산 분야 265.8톤CO₂eq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현재 감축실적이 자연 탄소흡수원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실제 배출원에서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균형 있는 감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가와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맞춰 기본계획과

이행평가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성과 점검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지역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군은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조례 공포 이후 '서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산업의 특성을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탄소흡수원 확대와 함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농업 체험객 농특산물 구매 쿠폰 지급

가구당 최대 5만 원... '나주농업페스타'서 사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농업·농촌 체험과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연계한 인센티브를 통해 관광객의 체험 참여를 높이고 나주를 다시 찾는 관광 기반을 마련한다.

나주시는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농업·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농업체험객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나주에서 농촌을 체험하고 지역 농특산물로 여행의 즐거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타 지역 거주자가 나주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체험형 농장에서 농업·농촌 체험을 완료하면 체험비의 40%를 나주 농특산물 구매 쿠폰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받은 쿠폰은 오는 10월 7

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26 나주농업페스타'에서 나주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농촌 체험을 지역 농특산물 소비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타 지역 거주자는 참여 시설에 사전 예약한 뒤 체험을 완료하고 체험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서 안내받은 QR코드를 통해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와 체험형 농장 3개소까지 모두 1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시설은 금안한글마을(노안), 화합마을(세지), 예곡왕곡마을, 명하쫄면마을(문평), 이슬촌마을(노안), 흥련마을(산포), 왕곡덕실마을, 반남역사문화마을, 봉향대실마을, 뷰티풀농장(이창동), 루루블루베리체험농장(다시), 푸요팜(남평)이다.

시는 매일 마지막 주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개별 안내하고 오는 9월 말 나주농업페스타 초대장과 함께 체험비의 40%에 해당하는 농특산물 구매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포스터

안성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신청하세요”

안성시가 최근 국제 유가 불안과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나, 아직 사업을 접하지 못한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

이고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다. 사업 기간(2026년 3월~9월) 중 지원 대상 유종(휘발유·경유)의 면세유를 구매하고, 신청 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사료

Dream Service

축산의 일상을 지키는 **토탈솔루션**

농협사료 드림파트너

컨설팅 / 시설지원 / 방역지원 / 수의진료

땀방울의 무게를 알기에, 당신의 고민이 멈추는 곳에서 농협사료의 걸음은 시작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부터 가장 나쁜 순간까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